

# 강원특별자치도 역사문화권 정비 사업 발전 방안

2023. **6. 22** / 목 14시 30분  
강원연구원 리버티홀

## 프로그램

---

14:00-14:30 30분 • 등록

---

사회 김경남 강원학연구센터장

---

14:30-14:40 10분 • 개회사  
- 현진권 강원연구원장

• 기념촬영

---

14:40-15:40 60분 • 발표

- 강원특별자치도 역사문화권 설정의 의미와 방향  
/ 김규운 강원대학교 사학과 교수

- 역사문화권 정비육성 선도사업 사례발표  
/ 임승빈 강릉시청 문화유산과 문화유산정책담당

---

15:40-15:50 10분 • 휴식

---

좌장 최종모 강원문화재연구소장

---

15:50-16:50 60분 • 자유토론

- 김창겸 김천대학교 교수  
- 박경신 송실대학교박물관 학예팀장  
- 유재춘 강원대학교 교수  
- 이상균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 이상수 가톨릭관동대학교중앙박물관 학예실장  
- 홍형우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

17:00 • 폐회

---

## 목 차

---

- 강원특별자치도 역사문화권 설정의 의미와 방향 ..... 4  
/ 김규운 강원대학교 사학과 교수
  
- 역사문화권 정비육성 선도사업 사례발표 ..... 26  
/ 임승빈 강릉시청 문화유산과 문화유산정책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역사문화권 설정의 의미와 방향

김 규 운

강원대학교 사학과 교수

# 강원특별자치도 역사문화권 설정의 의미와 방향

2023.6.22  
김규운

- 2020년 6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약칭 : 역사문화권정비법)」이 입법
- 2022년 1월 역사문화권정비법의 개정으로 인해 중원역사문화권과 함께 예맥역사문화권이 설정

- 
- 제정된 입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연구 및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중요함
  - 각 지자체들간의 협력과 전담 조직의 구성, 후속세대 양성 등 여러분야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함
  - 다른 역사문화권의 사례 검토를 바탕으로 예맥역사문화에 대한 이해를 정리하고, 강원도의 고대 역사문화권 설정에 대해 접근해 보고자 함
  - 예맥역사문화권과 관련한 연구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

강원특별자치도 역사문화권

3

권역 대상	의안명	소관부처	제안일자	비고
역사문화권	1 고대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국토교통부	2017.12.15.	
	2 고대역사문화권 지정 및 연구·조사 등에 관한 법률안	문화재청	2018.03.13.	
	3 역사문화권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문화재청	2019.04.11	법률 제17412호 2020.6.9. 제정
개발문화권	1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국토교통부	2015.07.23.	
	2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국토교통부	2016.06.16.	
	3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국토교통부	2017.08.25.	
	4 탐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국토교통부	2018.11.01.	
	5 탐라역사문화 보존 및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	문화재청	2019. 11. 5.	
	6 마한역사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	문화재청	2019.06.27.	
기타	1 풍납토성 보존 및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문화재청	2017.02.28.	법률 제17418호 2020.6.9. 제정
	2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문화재청	2017.05.29.	법률 제16779호 2019.12.10. 제정
	3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문화재청	2017.05.30.	

강원특별자치도 역사문화권

4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20년 6월) 및 개정(22년 1월)

연도	2017	2017	2018	2018	2019	2019	2019	2020
문화권	개별	전체	전체	개별	전체	개별	개별	전체
법안명 (발의일)	가야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17.8.25.)	고대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17.12.15.)	고대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발전에 관한 법률안 (18.3.13.)	탐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18.11.1.)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19.4.11.발의)	마한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 (19.6.27.)	탐라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 (19.11.5.)	역사문화권 정비에 관한 특별법 (20.6.9.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문화재청	문화재청	문화재청
역사문화권 정의	기원 전후부터 6세기 중반까지 가야가 존재했던 지역	문헌기록과 유적·유물을 통해 고대 역사문화권으로서 문화권을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지역(4개) 백제, 신라, 가야, 마한(4개)	유적, 유물, 문헌 기록을 통해 고대 역사문화권으로서 문화권을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지역(5개) 신라, 고구려, 백제, 가야(5개)	기원 전후부터 조선 초기 무렵까지 탐라로 지정되는 지역으로서 고유의 역사문화권으로서 문화권을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지역(4개) 신라, 고구려, 백제, 가야(4개)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무형유산의 생산 및 축적에 의해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한 지역으로서 마한, 양남, 양남, 양남 등 지역(4개) 신라,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4개)	기원전 2세기부터 초기 무렵까지 마한이 존재했던 지역으로서 마한, 양남, 양남, 양남 등 지역(4개) 신라,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4개)	기원 전후부터 조선 초기 무렵까지 탐라로 지정되는 지역으로서 고유의 역사문화권으로서 문화권을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지역(4개) 신라,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4개)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무형유산의 생산 및 축적에 의해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한 지역으로서 마한, 양남, 양남, 양남 등 지역(4개) 신라,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6개)
권역지정 절차	광역(요청+기초(의견수렴))→국토부장관(지정+위원회의) 의	광역(요청)+기초(의견수렴)→국토부장관(지정+위원회의) 의 ※2개이상 지자체 일 경우, 공동 요청	①문화재청장+관계장관(의견수렴)→국토부장관(지정+위원회의) 의 ②광역(요청)+기초(의견수렴)→문화재청장(지정+위원회의) 의(신문)	지자체(요청)→국토부장관(지정+위원회의) 의(신문)	기초-광역(의견수렴)→문화재청장(지정+위원회의) 의(신문) ※2개이상 지자체일 경우, 공동 요청	①문화재청장+관계장관(의견수렴)→국토부장관(지정+위원회의) 의(신문) ②기초-광역(의견수렴)→문화재청장(지정+위원회의) 의(신문)	기초(요청)→광역(의견수렴)→문화재청장(지정+위원회의) 의(신문) ※2개이상 지자체일 경우, 연계 협의하는 상호협의→문화재청장(지정)	기초(요청)→광역(의견수렴)→문화재청장(지정+위원회의) 의(신문) ※2개이상 지자체일 경우, 연계 협의하는 상호협의→문화재청장(지정)
타당성·기초조사	○	○	○	○	○	○	○	기초조사만 시행
목적	조사 연구	○	○	○	○	○	○	○
발굴	○	○	○	○	○	X	○	○
정비	●	●	△	●	●	△	△	○/●
활용	○	○	○	○	○	○	○	○

건축공간연구원 2021, 『역사문화권 정비 5개년 기본계획 연구』, 문화재청.

5

**강원특별자치도 역사문화권**

연번	의안번호	대표발의(제안일자)	주요 내용	비고
1	2104463	윤영덕의원(2020.10.8.)	마한역사문화권(광주, 전남 포함)	
2	2104818	이상직의원(2020.11.2.)	마한역사문화권(광주, 전남, 전북 포함)	
3	2106499	문진석의원(2020.12.16.)	마한역사문화권(광주, 전남, 전북 충청 포함)	
4	2107795	도종환의원(2021.1.29.)	중원역사문화권(충북, 강원, 경북 일부) 신설	
5	2109026	이종배의원(2021.3.23.)	중원역사문화권(충북, 강원, 경북, 경기 포함)	
6	2110051	허영의원(2021.5.12.)	예맥역사문화권(강원) 신설	
7	2112869	신정훈의원(2021.10.18.)	문화권별 역사문화권발전공동협의회 추가	문제위 계류
8	2114633	김성주의원(2022.1.28.)	후백제역사문화권(충북, 충남, 전북, 광주, 전남, 경북) 신설	문제위 계류
9	2117513	배현진의원(2022.9.23.)	문화재→국가유산 표기 개정	문제위 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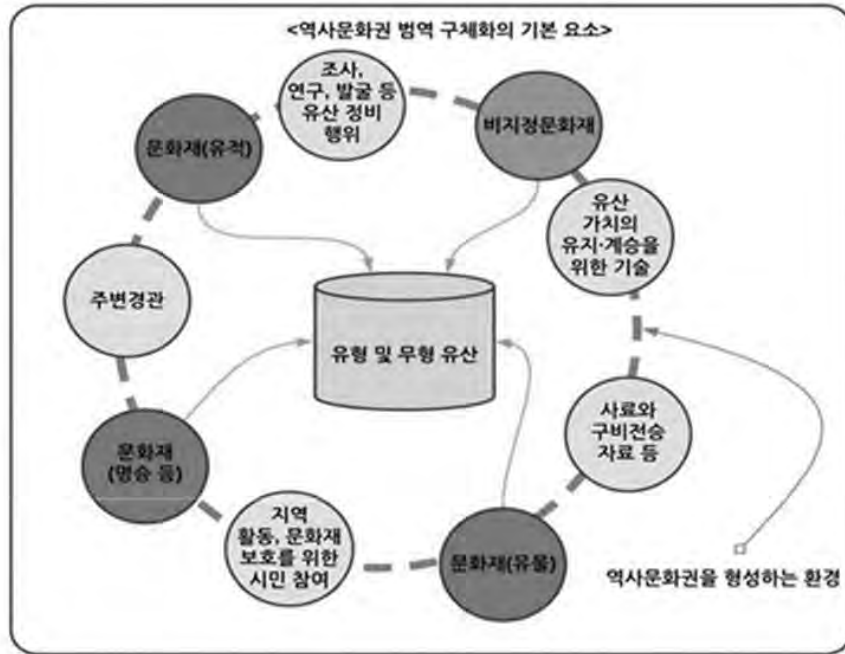
6

**강원특별자치도 역사문화권**

제2조의 1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역사문화권”을 정의하고 권역별 시공간을 규정하였다.

“역사문화권”이란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형·무형 유산의 생산 및 축적을 통해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발전시켜 온 권역으로 현재 문헌 기록과 유적·유물을 통해 밝혀진 권역을 말한다.

가. 고구려역사문화권: 서울, 경기, 충북지역 등을 중심으로 고구려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나. 백제역사문화권: 서울, 경기, 충청,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백제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다. 신라역사문화권: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신라와 통일 신라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라. 가야역사문화권: 경남, 경북, 부산, 전남,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가야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마. 마한역사문화권: 충청, 광주, 전남,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마한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바. 탐라역사문화권: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탐라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사. 중원역사문화권: 충북, 강원, 경북,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고구려·백제·신라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아. 예맥역사문화권: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예맥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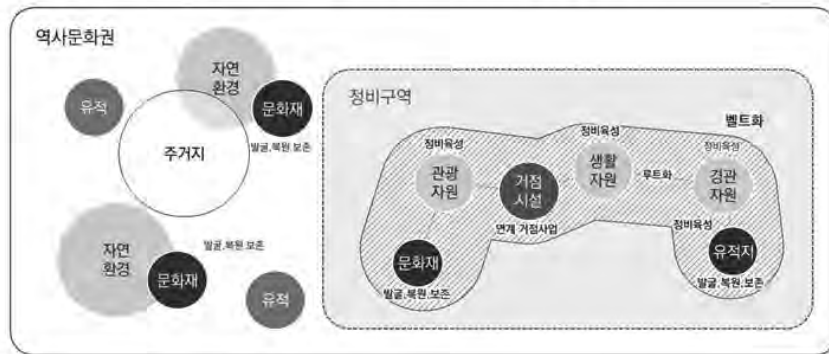


제2조 3항에서는 「역사문화권정비법」의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이란 역사문화환경을 조사·연구·발굴·복원·보존·정비 및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문화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조 4항에서는 「역사문화권정비법」의 “역사문화권 정비구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역사문화권 정비구역”이란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또한 제14조 1항에 따르면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9조)에 반영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역사문화권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역사문화권			9
<b>목표1</b> 역사문화권 가치창출 기반 마련	<b>정책과제1</b>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제도적 기반구축	<b>정책과제2</b> 역사문화권 역사문화환경 조사 및 연구	
<b>목표2</b> 역사문화권 정비를 통한 지역활성화 도모	<b>정책과제3</b> 역사문화권 정비육성 선도모델 추진	<b>정책과제4</b>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및 산업활성화 촉진	
<b>목표3</b> 참여와 협력을 위한 역사문화권 거버넌스 형성	<b>정책과제5</b> 시민참여 및 활동 유도	<b>정책과제6</b> 전문인력 강화 및 국제교류	

강원특별자치도 역사문화권			10
<b>목표 1. 역사문화권 가치창출 기반 마련</b>			
<b>정책과제 1.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제도적 기반 구축</b>			
1-1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 수립기준 마련	1-1-1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기초가이드 마련	1-1-2 정비시행계획 계획수립 지침 마련	
1-2 정비사업 지원체계 및 법제도 정비	1-2-1 정비사업 지원체계 및 운영방안 마련	1-2-2 역사문화권 성과 모니터링 관리체계 구축	
1-3 부처-부서 협력체계 마련	1-3-1 부처협업 연계 정책모델 개발	1-3-2 지자체 역량 증진 지원	
<b>정책과제 2. 역사문화권 역사문화환경 조사 및 연구</b>			
2-1 역사문화권 기초조사	2-1-1 역사문화환경 목록화 조사	2-1-2 역사문화권 시·공간 범위 및 개념 정립 연구	
2-2 역사문화권 조사 및 연구 인프라 구축	2-2-1 역사문화환경 조사 연구 및 정비 중장기 계획 수립	2-2-2 역사문화권 DB 및 포털 구축	
2-3 역사문화권 가치심화연구 및 발굴조사 정비	2-3-1 역사문화권 가치조명 심화연구	2-3-2 역사문화권 비지정 유적 발굴조사 및 정비	
	2-3-3 국가에 의한 역사문화권 중요유적 발굴조사 및 정비		
<b>목표 2. 역사문화권 정비를 통한 지역 활성화 도모</b>			
<b>정책과제 3. 역사문화권 정비육성 선도모델 추진</b>			
3-1 역사문화권 정비 선도사업 추진	3-1-1 역사문화권 정비 선도사업 지원체계 구체화	3-1-2 역사문화권 정비 선도사업 추진	
3-2 역사문화 SOC 조성	3-2-1 역사문화 SOC 개념 정립 및 실행 타당성 검토 연구	3-2-2 역사문화 SOC 조성사업 추진	
<b>정책과제 4. 역사문화기반 창업 지원 및 산업 활성화 촉진</b>			
4-1 역사문화기반 창업 지원 및 육성	4-1-1 역사문화기반 창업지원 육성		
4-2 유적 및 역사문화환경 보호·활용 연구	4-2-1 역사문화환경 디자인 가이드 개발연구	4-2-2 유적 가치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R&D) 기획연구	

**목표 3. 참여와 협력을 위한 역사문화권 거버넌스 형성**

**정책과제 5. 시민참여 및 활동 유도**

5-1 역사문화권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5-1-1 시민참여 교육·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5-1-2 지역활동가 교육 및 육성 5-1-3 협의체 구성 및 활동 지원
5-2 기관·기업·단체의 참여 유도	5-2-1 관련 공공기관 협업체계 마련 연구 5-2-2 민간기업 역사문화권 활동 및 참여 유도방안 연구 5-2-3 역사문화권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육성

**정책과제 6. 전문인력 강화 및 국제교류**

6-1 역사문화권 전담기구 설립 지원	6-1-1 국립역사문화센터 건립 추진 6-1-2 역사문화권 연구재단 설립 기본구상 연구 6-1-3 역사문화권 연구재단 설립 지원
6-2 역사문화권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6-2-1 역사문화권 거점대학 선정 및 정비업무 수행 6-2-2 한국 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연수원 교과과정 개설
6-3 학술연구 및 국제교류 확대	6-3-1 학술대회 및 학술주간 등 행사 개최 6-3-2 국제교류·협력 및 대응전략 연구

결국 핵심은  
비지정문화유산을 포함한 면적  
관리 정비 활용  
역사문화도시 조성  
지자체의 의지가 무엇보다 절실  
고도보존법, 문화재보호법과 차이

강원특별자치도 역사문화권

13

가야역사문화권의 경우 2010년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되었고, 2019년까지 추진되었다. 이 사업은 달성군과 고령군, 함안군 등 경남·북 8개군(931.9km)에 총 사업비 9천 158억원을 투입해 37개 사업으로 세분화되어 추진되었다.

가야역사문화권의 경우 2010년대 이후 가야역사문화권과 관련하여 다수의 특별법안 등을 제안하며 역사문화권 단위로 종합적 접근을 통한 기본계획을 기 수립하였다. 2020년에는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초광역협력 가야문화권 조성 기본계획' 또한 수립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초 자체단체의 유적 연구·조사 및 발굴·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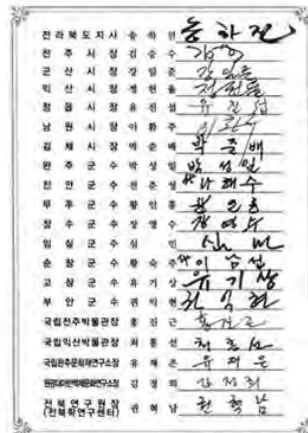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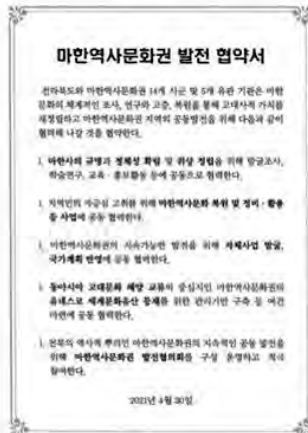
마한역사문화권의 경우 「역사문화권정비법」의 취지에 맞는 지자체 조례와 시행 계획을 수립하며 역사문화권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정책기반을 마련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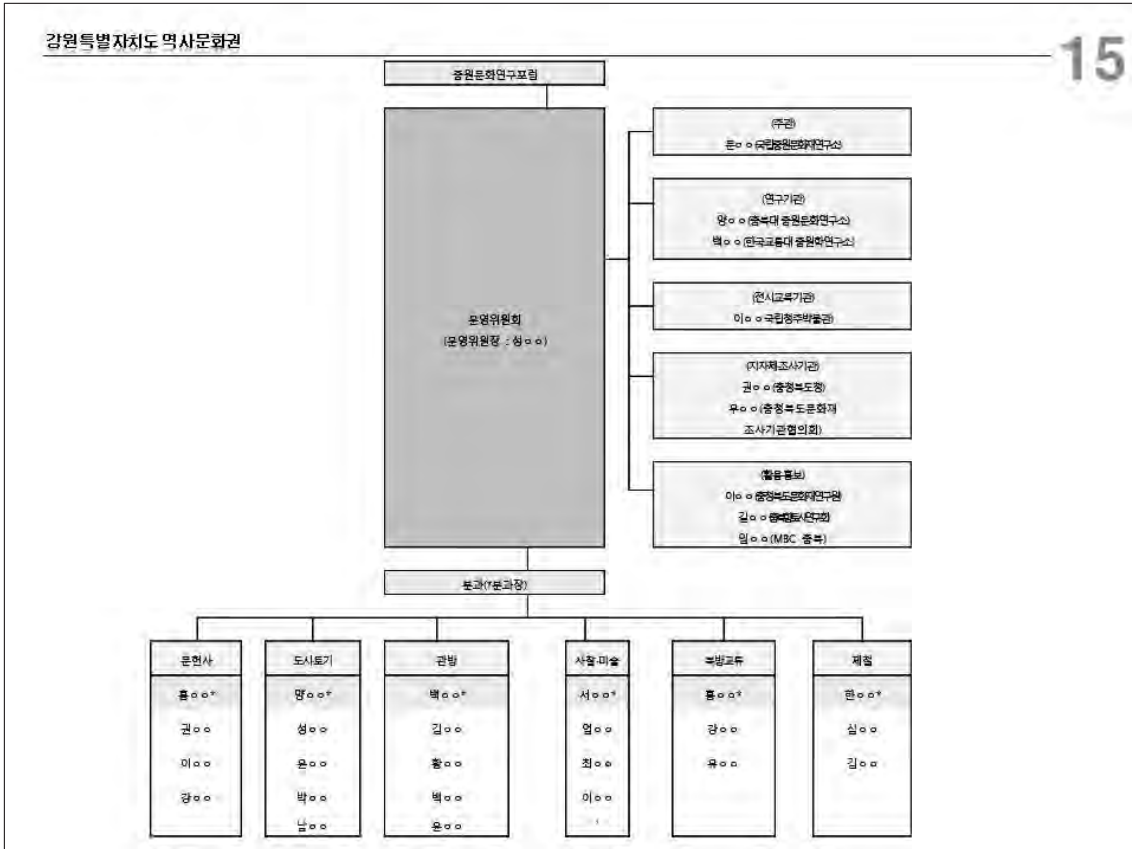
전라남도도는 특히 「역사문화권정비법」 제정을 전후하여 마한역사문화 복원을 위하여 마한역사문화권과 관련된 계획을 시행하고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는 중이다. 2017년 11월 마한문화권 개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를 통해 12월 「영산강유역 마한문화권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으로 2020년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는 성과가 있었다. 또한 2018년 4월 「전라남도 영산강유역 마한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19년 11월 전라남도 내 11개의 시·군과 8개의 유관 기관은 「마한문화권 지역 공동발전 협약」을 체결하고, 마한역사문화권 발전을 위한 지자체 간의 협조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20에는 '2020 영산강유역 마한문화포럼 비전선포식'을 개최하였고, 연계 행사로 '2020 영산강유역 마한문화권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며, 마한역사문화권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 중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역사문화권

14

전략목표	I	마한역사문화권의 역사적 실제 규명
실행과제	I-1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위한 기초 조사·연구
	I-2	영산강유역 마한역사문화권 주요 유적 조사·연구
	I-3	마한사 복원을 위한 학제간 융합 심화 연구
전략목표	II	마한 역사 문화자원의 시민 향유 여건 조성
실행과제	II-1	영산강유역 마한역사문화권 유적 보존·관리 기반 확보
	II-2	마한 역사·문화자원 특권·정비 연구
	II-3	마한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및 홍보
전략목표	III	고대 동아시아 문화권 연구의 중심으로서 마한 역사·문화자원의 세계화
실행과제	III-1	마한 역사·문화자원 통합 조사·연구 및 보존·관리 체계 구축





강원특별자치도 역사문화권 16

### 묘(凸)자형 주거지

○ 원삼국시대 중부지역의 고고학적 양상으로 중도유형문화로 설정(박순발 1996).

○ 묘(凸)자형 주거지는 중도유형(문화)의 요소 중 하나임.

Ⅰ ① 묘(凸)자형 주거지 / ② 경질무문토기와 타날문토기 공반 / ③ (좁석식)적석층

Ⅰ 시간적 범위는 원삼국시대 ~ 한성백제 초기(기원전 2세기 ~ 기원후 3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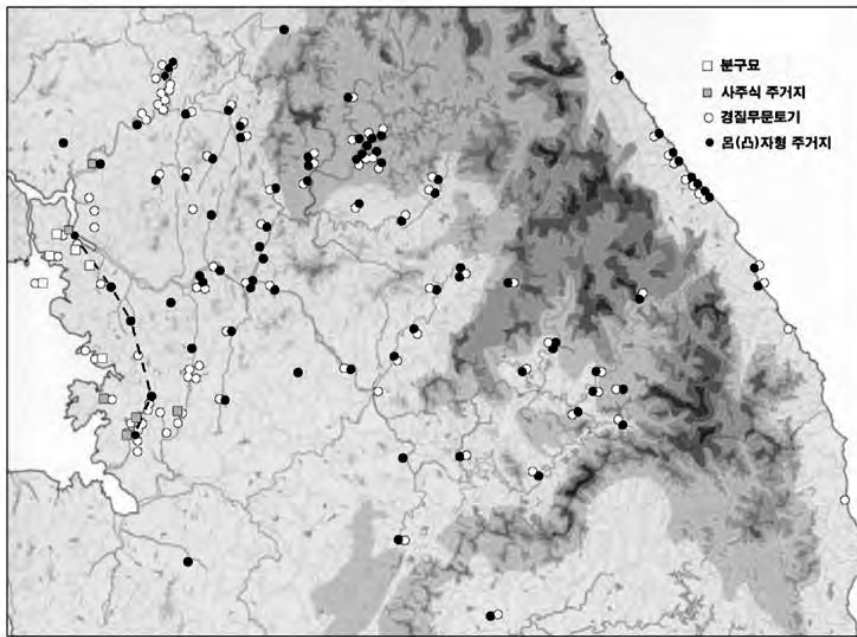
Ⅰ 입지조건, 평면형태, 토기 제작기법 등과 관련하여 단결-크로노프카 문화권에서 기원을 찾음(박경신 2020).

Ⅰ 주거지의 평면형태(전벽과 후벽의 각도)에 따라 오각형, 육각형으로 유형 분류(송만영 1999). 최근 평면형태보다 노시설의 형태변화에 주목하여 연구 진행(박종국 2012, 박경신 2019). 노시설은 무시설식, 부석식, 중도식 노지와 외줄구들로 분류됨.

Ⅰ 경질무문토기와 타날문토기의 공반 비율을 통해 전기, 중기, 후기로 시기구분. 전기에는 경질무문토기의 비율이 지배적이며, 후기로 갈수록 타날문토기의 공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남(송만영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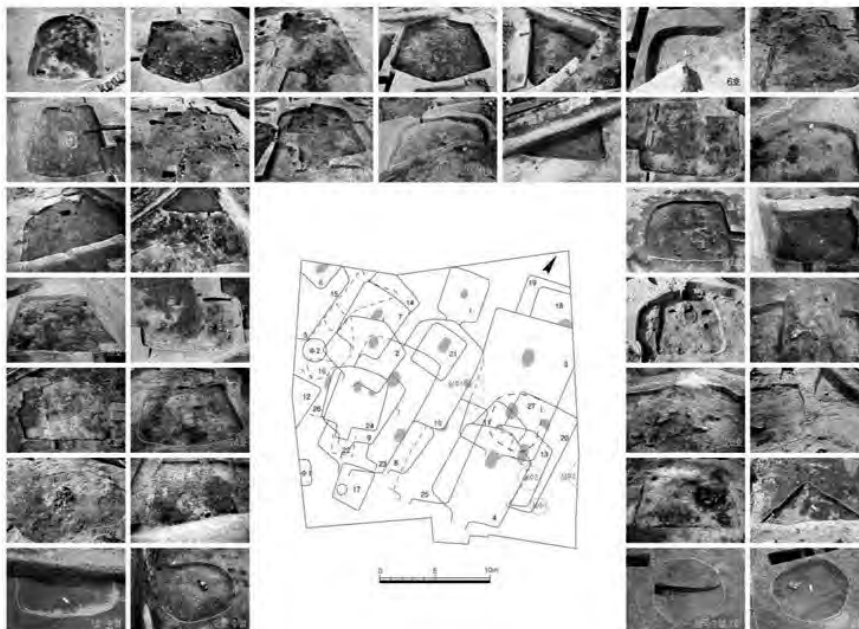
강원특별자치도 역사문화권

17



강원특별자치도 역사문화권

18





### 묘제

- 적석총은 중도유형(문화)의 묘제로 인식되고 있음.
- 단, 연구자에 따라 용어의 사용이 상이함.

#### Ⅰ ① 적석총 ② 증석식 적석총 ③ 적석분구묘 ④ 증석묘, ⑤ 적석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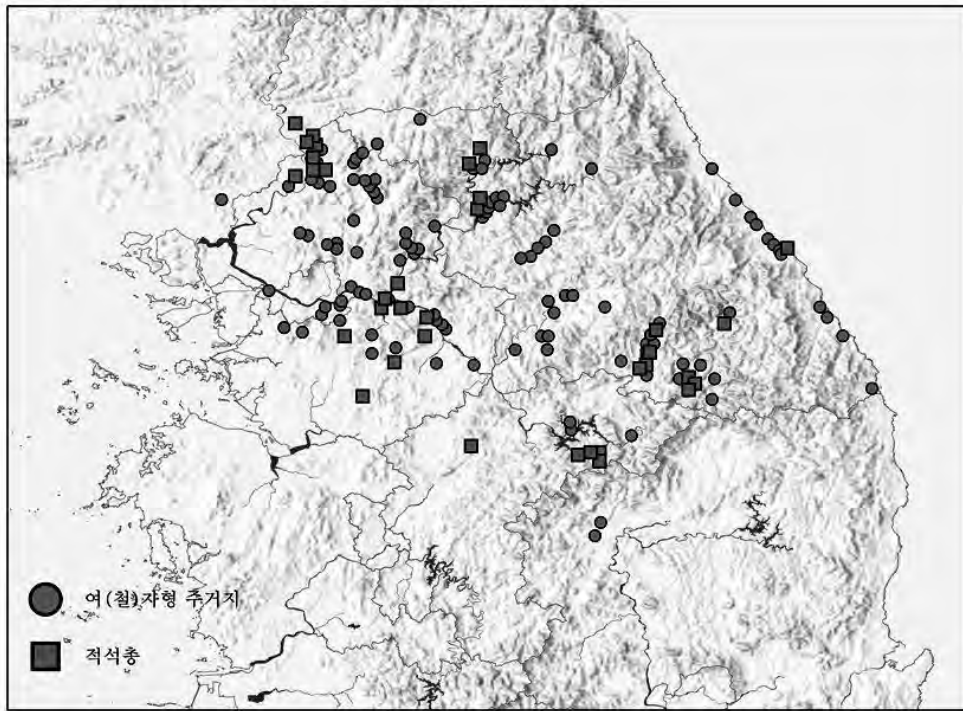
○ 적석총은 한강 중·상류와 임진강 유역에서 확인됨. 1기 또는 2~3기가 독립적으로 분포함. 하천을 따라 강안 또는 이에 매우 인접한 지점에 축조. 대부분 고대한 분구의 형태를 갖춤. 확인된 적석총별로 축조방법이 상이하나 매장주체부 구조에 있어 연접하여 축조되는 특징이 확인됨. 즉, 한 분구 안에 여러 피장자를 매장하는 구조임. 출토유물을 통해 볼 때 3세기 후반부터 4세기대까지 확인됨(정치영 2020).

○ 적석총을 제외한 묘제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음. 이에 이전 묘제 파악에 어려움이 있으나 가능성을 살필 수 있는 것으로 세골장을 전제로 한 옹관묘와 화장 등이 제기됨(심재연 2010; 박경신 2018; 정치영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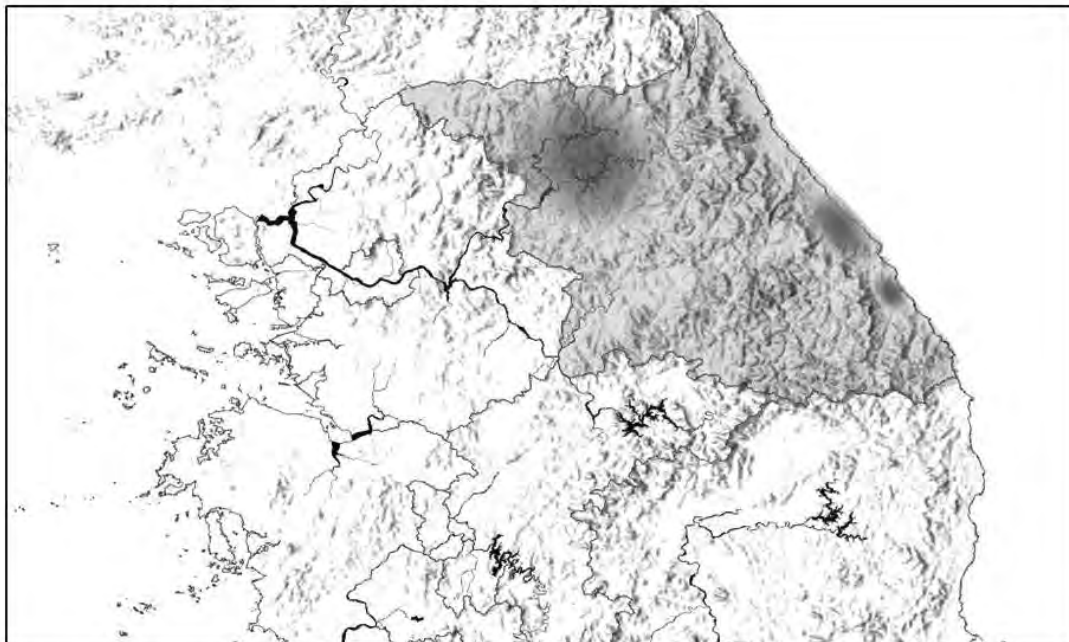
강원특별자치도 역사문화권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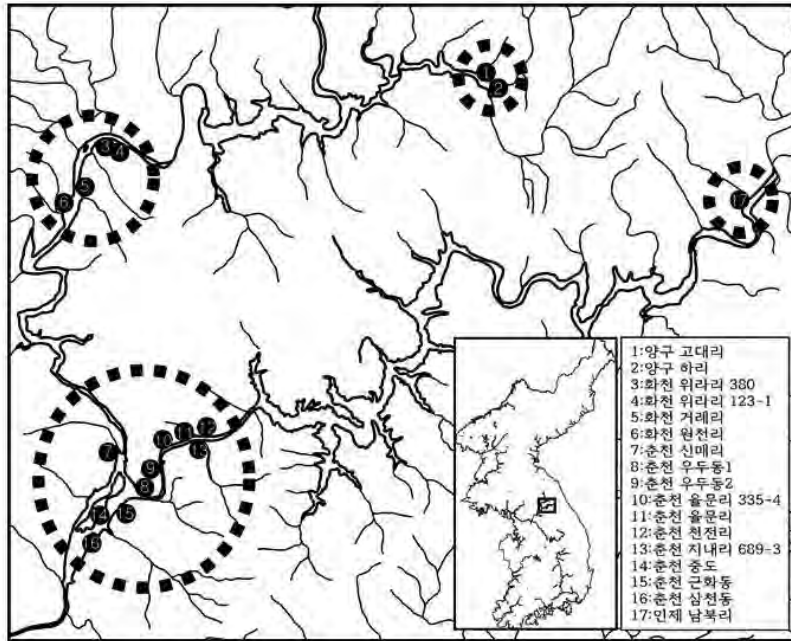


강원특별자치도 역사문화권

24







취락명	유구 수량			
	청동기시대		원삼국시대	
	주거지	수혈	주거지	수혈
양구 고대리	90	35	24	22
화천 위라리	54	17	56	49
화천 거례리	296	290	12	-
화천 원천리	30	8	117	88
춘천 신매리	45	8	35	19
춘천 우두동1	-	-	6	4
춘천 우두동2	63	18	282	361
춘천 천전리	113	418	13	6
춘천 읍문리	213	29	111	18
춘천 읍문리 335-4	2	-	7	-
춘천 지내리 689-3	-	-	1	4
춘천 중도동	1,390	808	227	433
춘천 근화동	-	1	16	5
춘천 장학리	1	-	2	-
춘천 삼천동	10	-	3	-
인제 남북리	3	2	2	-
합계	2,310	1,634	914	1,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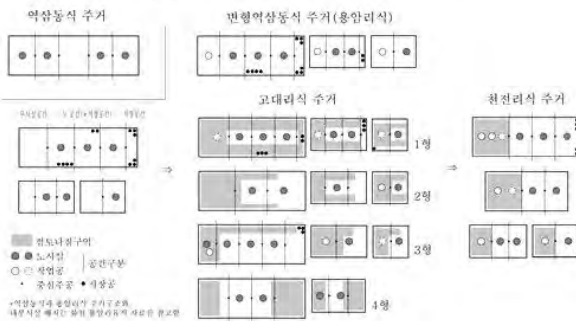
강원특별자치도 역사문화권

27



청동기시대 주구묘  
춘천 천전리유적(상: 8호 주구묘, 하: 전경)

청동기시대 묘역식지석묘의 제단형 묘역  
산청 매촌리유적



강원특별자치도 역사문화권

28

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춘천시	인제군	홍천군	횡성군	평창군	원주시	소계	합계
유적수	1	1	5	11	-	6	1	2	2	29	
시·군	영월군	정선군	고성군	속초시	양양군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태백시	소계	98
유적수	-	5	1	-	5	31	12	13	2	69	



고대 예맥역사문화권 설정 그 자체가  
 유산의 보호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설정 및 관리에 따른 기준을 충족시키려는  
 노력을 유발시키고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유산의  
 관리책임을 해당 지자체에 부담 지울 수 있음



**\*단계별 발전 전략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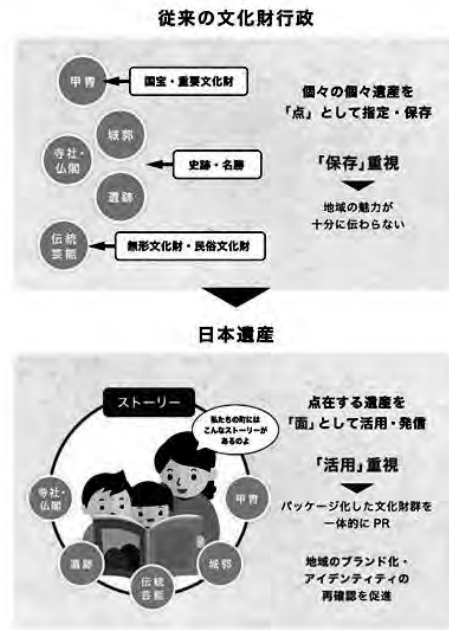
중요 유적에 대한 현황 분석 후, 유적의 발굴·경비·활용 계획을 학술조사연구와 관리·활용영역에 기반하여 수립  
장기간의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단기·중기·장기'의 사업 수행 골안이 필요

**<발굴·정비·활용 계획>**

구분	부석내용
개요	입지 및 자연환경
	토지이용현황
	접근 및 동선 현황
	경관현황
	문화재 지정현황
학술조사연구 영역	학술 연구 현황(문헌, 고고, 미술, 건축, 도시 등) 기존 학술조사(발굴조사 등) 현황
관리·활용 영역	보수정비 현황
	문화재구역, 보호구역, 보호물, 시설물 현황
	현상변경 허용 기준 활용 현황

고대 역사문화권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일본에서도 일본유산(JAPAN HERITAGE) 운영  
면적 관리 + 스토리텔링 = 활용 중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역사·문화권역 기준 연계**

- 국토교통부는 지역 간 연대감 형성 방안들 중 하나로 역사문화에서의 동질성을 제시하였음
- 따라서 본 용역의 역사문화권 연구 결과의 활용성 증대 예상

**<역사·문화 지역 연계 방안 예>**

문화권역	관광	남해안 광역 문화관광권 개발	부산, 경남, 광주, 전남 등
		전라전년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전북, 전남, 광주
	역사문화	충청유교문화권 조성사업	대전, 세종, 충북, 충남 등
		가야문화권 조성 사업	경남, 경북, 전북, 전남, 부산 등

출처: 국토교통부, 제2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지역사로서의 이해

예맥역사문화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한 연후에 지역 역사의 가치와 의미, 그 활용의 탐색이 가능

다른 문화권과 달리 예맥역사문화권은 도 단위 대문화권으로 설정 가능  
고대 국가의 중심지와 다르게 한반도 내의 한 문화로서 자리매김하였던 모습, 그 증거로서의 문화유산에 대한 실증적 접근을 통해 지역사로서 이해

초등·중등 교육과정에서 지역사 현장학습의 중요성이 강조됨

예맥역사문화권 내 문화유산으로 지역사 교육 콘텐츠로 활용 가능

강원특별자치도 역사문화권
39



2022 제3회  
CONTEST 馬韓 마한  
THE JR 학술  
경연대회

**응모기간**  
09. 15. THU 까지

**논문 발표 및 심사**  
09. 30. FRI  
전남도청 김대중홀

**시상식**  
10. 06. THU  
마한문화공원 일원

(재)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는 전국 대학(원)생 논문 경연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대회주제** 마한과 관련된 모든 주제(마한 역사 관련조 항목분야 등)

**참가자격** 고졸학, 역사학 등 관련학과 학부(대학원생(수료자 포함))

**응모방법** 첨부된 신청서와 논문 파일 제출 (제작연은 신청인 소위)

**제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A4용지 5매 이상)

**제출기간** 2022년 9월 15일

**문의처** hks@hks.or.kr

시상내용		대학원생	
대상 문화재청장상	1명 200만원	대상 문화재청장상	1명 300만원
공신 전남도지사상	1명 100만원	공신 전남도지사상	1명 200만원
공신 한국학중앙연구원장상	2명 70만원	공신 한국학중앙연구원장상	2명 100만원

문 의 062-603-9636 홈페이지 www.hks.or.kr

강원특별자치도 역사문화권
40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을 통하여 지역 간 연계·협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역사문화권 정비육성 선도사업 사례발표

임 승 빈

강릉시청 문화유산과 문화유산정책담당

## 역사문화권 정비육성 선도사업 사례발표

발표자 : 임승빈 (강릉시청 문화유산과 문화유산정책담당)

### < 목 차 >

1. 준비과정
2. 학습 및 자문
3. 선도사업 기획
4. 선도사업 대상지 선정
5. 예맥역사문화권 자료
6. 장점 및 차별성
7. 단점 및 보완할 점
8. 마무리 및 제안사항

## 1. 준비과정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355(2023.2.8)

### □ 공모개요

- 가. 사업명: 2024년도 역사문화권 역사문화환경 정비육성 선도사업
- 나. 공모내용: 역사문화권 정비구역 내 역사문화자원 가치제고 및 지역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선도사업 공모
- 다. 선정규모: 3개 사업 내외
- 라. 지원내용: 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보조율 50%)
  - \* 선정규모 및 지원내용은 '24년도 예산확보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마. 신청자격: 기초 자치단체(시군)
- 바. 문화재청 추진일정
  - 1) 사업신청 및 접수: `23.2.8.(수) ~ 4.28.(금)
  - 2) 선정심사: `23.5 ~ 6월
  - 3) 심사결과 발표(1차): `23.6월
  - 4) 정비시행계획 접수 및 심의: `23.11 ~ 12월
  - 5) 보조금 교부 및 사업착수: `24.1월 ~

3

## 2. 학습 및 자문

### 역사문화권정비법

(목적) 우리나라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권별 문화유산을 연구·조사하고 발굴·복원하여 그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

### 건축공간연구원 brief (2022. 5.30)

1.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비와 지원이 가능
2. 고도(古都)로 국한되었던 역사문화환경의 면 단위 정비와 활용가치를 역사도시까지 확대
3.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정책이 기존의 규제와 보존 위주에서 지역 발전과 연계되는 다양한 정비방식을 추진하고 활용가치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전환

4

### 3. 선도사업 기획

전문 교수단

+



문화기획자

+

도시재생센터

+

문화유산과  
초당동주민센터












### 4. 선도사업 대상지 선정

- 01 교항리유적(철기)
- 02 방내리유적(청동기)
- 03 영진리유적(삼국, 통일신라)
- 04 방동리유적(청동기)
- 05 안현동유적(구석기, 삼국, 통일신라)
- 06 초당동유적(구석기, 신석기)
- 07 초당동유적(삼국, 통일신라)
- 08 강문동유적(철기)
- 09 교동유적(청동기)
- 10 별산동유적(철기, 삼국, 통일신라)
- 11 강릉대도호부관아(고려, 조선)
- 12 내곡동유적(구석기, 신석기)
- 13 신복사지(고려, 조선시대)
- 14 안인리유적(철기)
- 15 굴산사지(고려, 조선시대)



**강원지역 고분군 중 최대규모, 최고위계**

			
출토된 금동관 및 복원품		신라 출자형 금동관 출토 지역	금동관 특별기획전
			
금동용문투조대금구	금제호접형관식	은제조의형관식	금동제 이식류

**5. 예맥역사문화권 자료**

철기(예맥)시대 고고학적 유물 다수 발굴

				
convex, concave shaped bronze vessels		경질무문토기, 타날문토기	청동 진솔선에백장 인장(靑銅 晋率善濑伯长 印章)	
조선 총독부 조사 사진자료				
				
강릉 예국토성	강릉 예국토성	강릉 예국토성 지형도		

01 (삼국사기) 명주(강릉)는 대부분이 예(濊)의 옛 나라.

02 (삼국유사) 명주는 옛 예국(濊國)인데 시골사람이 밭을 갈다 예왕(濊王) 도장을 얻어 이를 바쳤다.

03 (고려사) 명주는 본래 예국(濊國)으로 한무제가 사군(四郡)을 둘 때 임둔(臨屯)이라 하였다.

04 (세종실록) 강릉은 본래 예(濊)의 고국(古國)인데(철국(鐵國) 또는 예국(樂國)이라고도 한다)

古今郡國志云今新羅北果濱州蓋濊之古國  
前史以扶餘為濊地蓋誤善德王時為小京置  
仕臣太宗王五年唐顯慶三年以何瑟羅地連  
鞞鞞罷京為州置軍主以領之景德王十六  
年改為濱州今因之領縣四旌善縣李高句麗  
仍置縣景德王改名今因之旌善縣李高  
句麗東吐縣景德王改名今因之旌善縣李高  
句麗縣景德王因之今連谷縣洞山縣李高句  
麗穴山縣景德王改名今因之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 기록된 예맥 풍속이 현재까지 전승

**예 맥 풍 속(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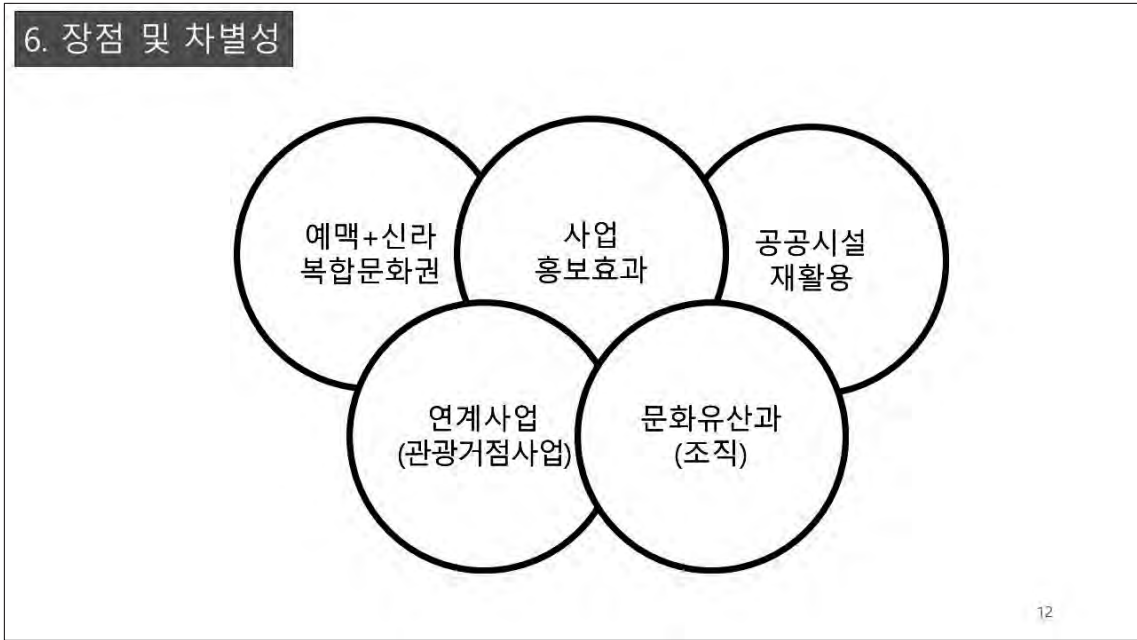
- 별자리로 풍흉을 미리 안다.
- 호랑이를 신으로 여겨 제사 지낸다.
-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무천(舞天)
- 산과 천(川) 구분이 있어 함부로 들어가지 않음.
- 사람이 죽으면 집 불태우고 새집 짓고 산다.
- 옥과 구슬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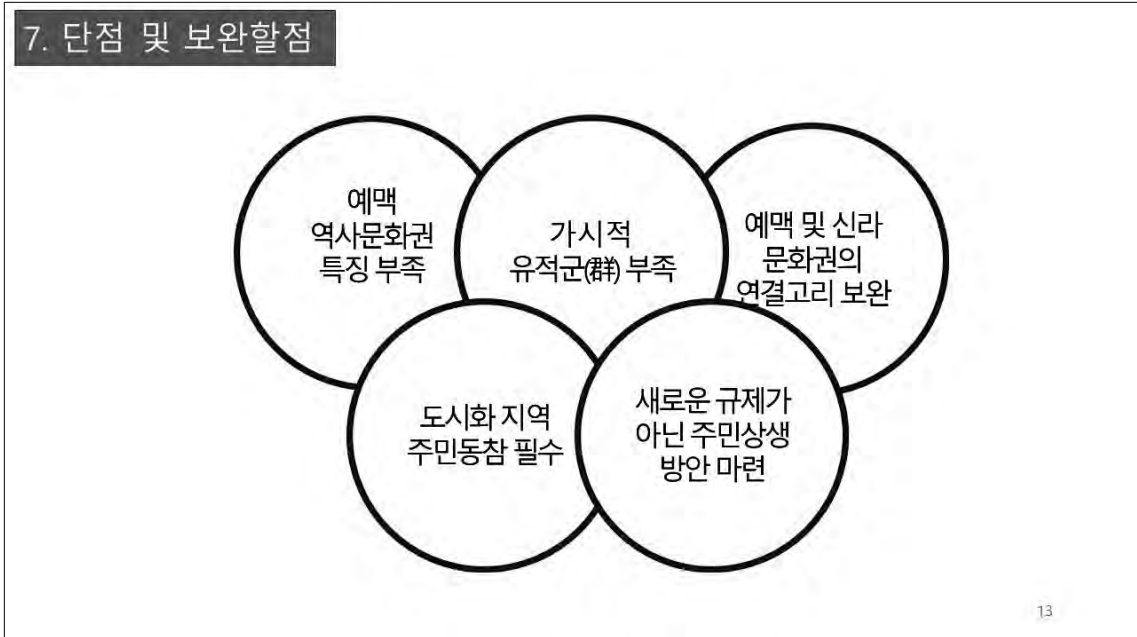
**전승모습**

- 사천하평담교놀이/좁상날 억지다리뺏기놀이
- 강릉단오제 국사 여성황 설화, 강문항 호랑이 설화
- 강릉단오제, 강문 남.여성황제, 강릉 무천제
- 진포배기(숫대·소도)문화
- 주거지 유적 中 고의적으로 화재를 낸 흔적 80% 이상
- 철기(예맥)유적 옥·구슬 출토사례 없음

10







13

### 8. 마무리 및 제안사항

**「역사문화권 정비육성 선도사업」 발표 순서**

- 발표대상/시간: 총 14개 시군 / 09:30 ~ 17:30
- 진행방법: 자치단체별 총 30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평가 및 정리 5분)

순서	자치단체	발표 시간	비고
1	광주	9:30 ~ 10:00 (30)	마련
2	전남	10:00 ~ 10:30 (30)	
3	전남	10:30 ~ 11:00 (30)	
4	전북	11:00 ~ 11:30 (30)	
5	충남	11:30 ~ 12:00 (30)	
중식		12:00 ~ 13:00 (60)	-
6	충남	13:00 ~ 13:30 (30)	백제
7	강원	13:30 ~ 14:00 (30)	예맥
8	경기	14:00 ~ 14:30 (30)	고구려
9	제주	14:30 ~ 15:00 (30)	탐라
10	경남	15:00 ~ 15:30 (30)	가야
11	경남	15:30 ~ 16:00 (30)	
12	경북	16:00 ~ 16:30 (30)	
13	전북	16:30 ~ 17:00 (30)	
14	전북	17:00 ~ 17:30 (30)	후백제
평가 집계 등		17:30 ~ 18:00 (30)	-

18개 시군 적극적인 참여

↓

중앙정부 관심 및 지원 유도

↓

예맥역사문화연구 본격화  
강원특별자치도 정체성 확립

14

<p>★ <b>공평동</b> 를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역사문화자원 보존계획)</p>	<p>① <b>매장문화재 발굴 시 전면 보존</b>하고 ② <b>해당 시설을 기부채납 시</b> 해당 면적만큼 기반시설 기부채납 으로 인정하여 ③ <b>상한용적률을 완화</b>하고, ④ <b>건축물 높이도</b> 도 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가 가능하도록 한다.</p>	<p>정비사업(재개발) 에만 적용가능</p>	
			
<p>[2017년 완공] 공평1·2·4지구 / 공동유적전시관 용적률 200% 완화에 따라 4개층 추가 건립</p>		<p>[2025년 완공 예정] 공평15·16지구 / 금속활자 유적전시관 예정 용적률 803% → 1,052%, 건축물 높이 70m → 104m</p>	
<p>강원특별자치도에 맞는 문화재보호와 지역상생의 강원특별자치도를 개발 필요</p>			

**예맥!**  
**2천년의 잠에서**  
**깨어나다**

# 종합토론

좌장 : 최종모 강원문화재연구소장

**김창겸**

김천대학교 교수

**박경신**

승실대학교박물관 학예팀장

**유재춘**

강원대학교 교수

**이상균**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이상수**

가톨릭관동대학교중앙박물관 학예실장

**홍형우**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 ‘강원특별자치도 역사문화권 정비 사업 발전 방안 모색’ 전문가 포럼 토론문

김창겸(김천대학교 기초교양학부 교수)

오늘 강원특별자치도, 강원연구원 강원학연구센터, 강원문화재연구소가 공동주최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역사문화권의 개념 정립과 역사문화, 정책적 의미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도 의미있는 행사이다. 그리고 저를 이 자리에 불러줘서 고맙게 생각한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모두가 알듯이, 오늘 주제의 발표는 김규운 선생님의 ‘강원특별자치도 역사문화권 설정의 의미와 방향’과 임승빈 선생님의 ‘역사문화권 정비육성 선도사업 사례발표’이다. 앞 주제의 내용은 향후 강원특별자치도 역사문화권의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고, 뒷 주제의 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 역사문화권 정비육성을 선도한 사업의 사례를 이야기한 것이다.

그런데 오늘 모임이 시시비비를 가려 증명하거나 정답을 찾는 학술연구세미나가 아니라 특정 사업을 추진함에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포럼이기에, 저는 두 주제 발표를 참조하면서 현실적이고도 정책적인 측면에서 저의 생각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포럼 제목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역사문화권이라고 표기하였지만, 정부가 진행하는 고대 역사문화권 정비법에 공식 명칭은 ‘예맥역사문화권’으로 설정되어 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2020년 6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약칭:역사문화권정비법)」이 입법되었다. 이 당시는 가야역사문화권을 설정하면서 고구려역사문화권, 백제역사문화권, 신라역사문화권, 마한역사문화권, 탐라역사문화권이라고 하는 6개의 문화권이 설정되었다. 그러다가 다행스럽게도 2022년 1월 18일 역사문화권정비법의 개정으로 인해 중원역사문화권과 함께 예맥역사문화권이 추가로 설정되었다.

그러나 강원특별자치도는 처음 출발이 늦어졌을 뿐만 아니라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입법을 신청하다 보니, 예맥이라는 공간적 시간적 범주와 실체를 분명하게 정립하지 못한 채로 고대역사문화권 정비사업에서 하나의 단위로 설정이 되어졌다고 보겠다.

역사문화권 정비법 제2조의 1항에서는 ‘역사문화권이란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형·무형 유산의 생산 및 축적을 통해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발전시켜 온 권역으로 현재 문헌기록과 유적·유물을 통해 밝혀진 권역을 말한다.’고 하면서 “아. 예맥역사문화권: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예맥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하였다.

이 조문에 근거하면, 예맥역사문화권이란 시간적으로는 ‘예맥시대’, 공간적으로는 ‘강원지역’과 그 이웃으로서 예맥 관련 유적유물이 소재하는 지역이 되는 듯하다. 이렇게 되면 그 시간과 지역의 범주가 매우 협소해지고, 게다가 그 대상 유물유적이 지극히 한정되어질 수 있다.

그러면 강원특별자치도로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현재의 법조항 명칭과 내용을 수정하여 개정입법을 추진할 것인지?(예를 들면 강원특별자치도 전역을 의미하는 강원역사문화권? 과거에 지금의 강원 특별자치도 전 지역을 아우르고 존재했던 태봉역사문화권? 등) 다시 말해, 지난 정권에서 나름 이 사업의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현재의 광역권 지방행정 단위로 권역을 설정하였으나, 이것은 이 사업이 추구하는 한국 고대의 (왕조 단위)역사문화권과 지금의 광역 행정단위와는 조금 비슷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은 불일치한다. 중원문화권은 명칭이 편의적이다.

이처럼 근본적인 대안을 찾느냐? 아니면 이와 달리 현실적인 발전 방안을 찾느냐? 다시 말해 현재의 이 법조문을 준수하면서 강원특별자치도가 자체적으로 시행세칙을 도의 조례 제정 등을 통하여 세부 사업내용을 다양하게 확대할 것인지? 즉 내재적인 발전방향을 찾을 것인지?

하지만 이 두 가지는 강원지역의 역사문화권 사업의 외연을 확장하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라, 당장 실현된다고 보장받거나 확신할 수는 없고, 바램이고 희망 사항인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은 이미 법이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여기에 맞추어 추진해야 하겠다.

저는 강원 지역의 고대 역사문화권 사업이 지역문화의 정체성 확립이랄까 특성화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다른 지역 역사문화권 사업과의 연계망 속에서 전체성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다시 말해 강원지역 역사문화 정비 사업이면서도 그것이 한국 고대 역사문화권 정비 사업이라는 대전제 속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사업의 내용면에서도 그렇고 진행방법에서도 그렇다고 본다. 그러므로 타 역사문화권과의 항시적인 협조 체제가 구축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통하여 지속적인 정보의 교환과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을 위한 수단으로 다른 역사문화권역의 담당 조직 및 인력들과 정기적인 업무협의회와 워크숍 등을 개최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다.

한편 강원지역 내 기초지자체 간의 협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도내, 특히 예맥 역사문화를 함께 가진 기초단체장들의 업무협약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 문화담당 학예직을 비롯한 행정 담당자들의 정기적인 모임과 상호 정보교류가 필수적이다.

**\* 토론문 제출 마감시간이 촉박하여 이하 서술을 생략하고, 추기 내용은 포럼 행사장에서 진행상황에 맞추어 추가로 이야기하겠다. 양해를 바란다.**

# ‘강원특별자치도 역사문화권 정비 사업 발전 방안 모색’ 전문가 포럼 토론문

박경신(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학예팀장)

## I. 「강원특별자치도 역사문화권 설정의 의미와 방향」에 대한 토론문

김규운 선생님은 지역 내 관련분야 최고의 전문가로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김규운 선생님은 최근 강원특별자치도 역사문화권 중에서도 “예맥역사문화권” 설정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애정으로 이미 많은 발표를 통해 역사문화권의 의미와 방향에 대하여 발표하신 바가 있습니다. 김규운 선생님의 발표문에 대하여 관련 지식이 일천한 토론자가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못하지만, 평소 가지고 있었던 몇 가지 우문을 드림으로써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 1. 강원특별자치도 역사문화권 설정을 위한 제도 정비, 조직 구성, 연구 수행 방안

현재 강원특별자치도는 역사문화권 설정과 관련하여 “역사문화권 가치창출 기반 마련” 및 “역사문화권 정비를 통한 지역활성화 도모 단계”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조사, 연구가 일정 수준에 올라와 있는지 의문입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는 역사문화권 설정과 관련하여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제도, 조직, 연구가 어떠한 준비 단계 또는 계획에 있는지 쉽게 알기 어렵습니다. 최근 중원문화재연구소에서는 가칭 “예맥문화연구포럼”을 조직하여 역사문화권의 구체적 수행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갔으며, 취락분과의 경우 유적 집성, 참고 자료 수집을 완료하고 전체 현황도 제작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다만 담당자의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더 이상의 활동을 이어가지는 못하였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 연구소가 부재한 관계로 중원문화재연구소가 예맥역사문화권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중원문화재연구소는 중원권에 매진하여 “예맥역사문화권” 설정에는 비교적 비중을 줄이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역사문화권의 제도, 조직, 연구 진행 상황에 대한 현재 수준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원문화재연구소 “예맥문화연구포럼”의 콘텐츠 인수 또는 합병 방안에 대한 김규운 선생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2. 강원특별자치도 역사문화권 협업 모델 및 중심 수행 기구의 설정

강원특별자치도 역사문화권의 발전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및 각 지자체(행정), 지역 국회의원(입법), 학계(연구)가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모델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한 접근방법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역사문화권을 운영하기 위한 중심 운영 기구 설정이 부족해 보입니다. 타 문화권 운영 사례로 본 강원특별자치도의 중심 운영 기구 설정 방안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II. 「역사문화권 정비육성 선도사업 사례발표」에 대한 토론문

임승빈 선생님은 강원특별자치도 역사문화권 정비육성 선도사업과 관련하여 강릉시를 대상으로 사업 절차와 제안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주셨습니다. 특히 선도사업 대상지로서 강릉 초당동과 강문동 일대의 원삼국~삼국시대 고고 유적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토론자는 영동지역(특히 초당동 및 강문동 일대) 문화유적 활용에 대한 지식이 짧습니다. 임승빈 선생님의 발표 내용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림으로써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 1. 역사문화권(강릉시) 설정과 소위 “예국” 문제

임승빈 선생님은 삼국지 위서동이전의 기록과 현재의 전승 및 고고 조사 현황을 비교하여 강릉시의 역사문화권 활용방안에 대한 직관적이고 설득적인 내용을 발표하셨습니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 역사문화권 설정에 있어서 예국, 맥국 등의 표현은 역사학계에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개념 요소입니다. 타 역사문화권(마한, 가야 등) 설정 시에도 종족적 개념 설정을 둘러싼 문제가 충돌하면서 역사문화권의 본질과는 동떨어진 논쟁이 반복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역사문화권(강릉시)의 정체성을 소위 “예국”으로 국한하거나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향후 역사문화권 설정 추진 시에 장애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선생님 및 강릉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2. 강원특별자치도 역사문화권(강릉시)에 맞는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사업모델

임승빈 선생님은 서울 공평동의 조사, 보존, 개발과 관련하여 “공평동 물”의 모델을 소개함으로써 역사문화자원의 합리적인 보존 및 활용 사례를 발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강원특별자치도 역사문화권(강릉시)에 맞는 “강원특별자치도(강릉시) 물”의 기본 설계 방향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며, 강릉시의 적절한 면 단위 정비 및 활용방안에는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역사문화권 정비 사업 발전 방안 모색’ 전문가 포럼 토론문

유재춘(강원대학교 교수)

1. 오늘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발전 방안 포럼에서 김규운 교수님은 역사문화권 정비법의 입법 과정과 입법 취지, 시행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 타 시·도에서의 관련 활동 현황, 그리고 예맥역사문화권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주제, 향후의 핵심적인 과제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주셨고, 임승빈 강릉시청 문화유산정책담당관님께서도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유일하게 문화재청 관련 공모사업에 예비 선정된 선도사업 사례를 정리해 주시어 본 역사문화권 정비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야 될 기본적인 방향성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 아직도 역사문화권 정비법을 그저 권역별로 문화유산을 보존, 정비하는 것에 대한 특별법쯤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도 거듭 강조된 내용이지만 분명히 법에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에 대해 “역사문화환경을 조사, 연구, 발굴, 복원, 보존, 정비 및 육성함으로써 지역 문화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문화유산의 보존 보다는 ‘활용’에 방점이 찍혀있는 법입니다. 그렇지만 강원지역 예맥문화권의 경우 법으로 설정이 되기는 하였지만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라 변변한 기초자료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활용’을 서두르기엔 마음만 급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임승빈 담당관님이 ‘단점 및 보완할 점’에서 제시한 ‘예맥역사문화권 특징 부족’, ‘가시적 유적군 부족’이 현 주소라고 생각합니다.

김규운 교수님의 발표문에서 역사문화권 권역 구체화의 요소로 조사, 연구, 발굴 등 유산 정비 행위, 유산 가치 유지·계승을 위한 기술, 사료와 구비전승 자료, 주변 경관, 시민 참여를 설명하시었고, 또 지난해 한국고고학회에서 수행한 역사문화권 가치와 개념 및 시·공간 범위 연구 사업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타 문화권 지역과 강원특별자치도를 비교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측면이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소견을 부탁드립니다.

3. 강원 지역에 설정된 ‘예맥문화권’ 관련하여 가장 시급한 문제는 체계적인 학문적 정리를 통한 도민의 보편적 인식의 확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맥 용어 및 시대, 예맥족과 예맥문화권의 ‘예맥’



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삼국사기>의 ‘맥국’에 대한 주석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맥국(貊國): 맥족의 나라라는 의미로, 구체적인 위치는 알 수 없다. 본서 권35 잡지 지리2를 비롯하여 『고려사』 권58 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6 춘천도호부 건치연혁조 등에서는 춘천을 맥국의 소재지로 소개하고 있으나, 본 기사에 함께 나오는 화려현과 불내현이 영동 지방에 위치했음을 고려하면, 춘천보다는 동해안에 가까운 지역에 있던 소국 정도로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sup>1)</sup>

또한 포털사이트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사전적 의미를 보면,

정의 : 고대 만주지역에 거주한 한국의 종족 명칭을 가리키는 역사용어. 예맥족  
개설 : 예(濊)와 맥(貊)으로 나누어 파악하기도 한다. 예·맥·예맥의 상호관계와 그 종족적 계통에 관해서는 일찍부터 논란이 되풀이되어 왔다. 예맥에 대해서는 예와 맥으로 나누어 보거나, 예맥을 하나의 범칭으로 보는 견해, 예맥은 맥의 일종이며, 예는 예맥의 약칭이라는 등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다....<sup>2)</sup>

예맥에 대한 사서(史書) 기록이 미미하기 때문에<sup>3)</sup> 여러 측면에서 예맥역사문화권 인식에 불리한 측면이 있는데다가 현재 위와 같은 인식은 예맥역사문화권 인식에 위협이 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타개할 방향에 대해 소견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4. 김규은 교수님은 예맥역사문화권의 유적으로서 핵심적인 주제로 ‘여(呂)자형 주거지’와 ‘묘제’를 제시해 주셨는데, 이러한 주제 이외에 더 제안할만한 것은 없는지 의견을 나누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직국’ 문제는 주요 소재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되고, 강릉의 예국토성(傳), 춘천의 경우 우두산성, 지내리 적석유구 등도 우선적인 조사를 통해 가능성을 타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역사문화권 정비법에는 향후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거점 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관의 형태는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치단체에서 상황에 맞게 설립할 수 있는데, 크게 보면 국립기관 설치를 유치하거나 자치단체에서 재단을 설립, 또는 기존에 있는 기관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입장에서 어떤 방향성이 바람직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참여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6. 임승빈 담당관님 발표문에서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 기록되어 있는 예맥 풍속과 현재 전승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앞서 김규은 교수님 발표에서도 언급하였다시피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에서는

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삼국사기> 권제1 신라본기 제1 유리이사금 17년(서기 40년) 9월조의 ‘맥국(貊國)’에 대한 註.  
2) [네이버 지식백과] 예맥 [濊貊]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3) <삼국사기>에는 ‘맥국’에 대해 신라본기 유리이사금 17년(A.D 40), 19년(A.D 42)조에 두 번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음.

권역 구체화 요소에 구비전승을 포함한 무형적인 요소도 중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좀더 보완하기 위한 방안 마련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내에는 예국, 맥국, 실직국 등과 관련된 설화 전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설령 전설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자료 집대성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근 익산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서동 왕자 출생지라고 하는 전설의 지점에 대해 발굴조사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우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곳에서 저장고 같은 기상천외한 지하 석축 시설물 유구가 확인되었습니다.

7. 임승빈 담당관님께서 발표문에서 ‘단점 보완할 점’에 대해 “새로운 규제가 아닌 주민상생 방안 마련”을 언급하시었는데, 지자체 입장에서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문화권 정비법 내용상으로는 명백한 규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재 관련 법이 일반 국민들에게 “규제”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칫 문화권 정비사업이 오해를 살 소지도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권 정비법에서는 문화유산의 보존을 우선시하지는 않으나 지자체의 적절한 보존, 관리 ‘의지’는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행정을 하시는 입장에서 애로점이나 적합한 방향성에 대해 소견을 부탁드립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역사문화권 정비 사업 발전 방안 모색’ 전문가 포럼 토론문

이상균(강릉원주대학교 교수)

강원특별자치도의 예맥문화권이 「역사문화권정비법」에 포함된 것은 학계와 행정에서 노력한 결과이고 환영할 일입니다. 이제는 예맥문화권을 부각하고 활용을 극대화할 방안과 정책 수립이 절실할 때입니다. 이것은 향후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을 통한 예산 투입과 행정력 지원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현재 선도사업 공모가 진행되고 있고, 자치단체별 경쟁도 매우 치열한 상황입니다. 아직 최종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강릉시가 선도사업 1차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2024년부터는 정비사업이 더욱 본격화할 것이며, 이에 따라 기초지자체의 관심도 다양각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기초지자체의 관심 유발, 상대적 박탈감 해소, 적극적인 사업 신청을 유도할 방안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생각되어, 짧은 소견이나마 몇 가지 선결과제와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토론의 의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 1. 「역사문화권정비법」 취지에 부합하는 핵심 유적 실태조사 급선무

- 사업 신청 시 예맥 관련 유적을 핵심 정비구역으로 반드시 제시
- 시군에 소재한 예맥 핵심 유적을 조사하여 목록화하고, 도식화하여 사업 신청(정비구역)의 기초자료로 확보 급선무
- 핵심 유적을 중심으로 주변의 연계 유적을 함께 조사하여 핵심 유적과의 연계성을 부각하는 작업 병행

## 2. 도↔시군 간의 역할 분담과 사업추진 경계를 명확히 정할 필요성

- 현 추진 체계 속에 도는 전략계획 수립, 신청·수행 주체는 시군으로 규정
- 도와 시군 간 유기적인 협조가 당연히 필요할 것이나, 이는 상호 분담역할이 명확하게 인지된 상태에서 가능(대부분의 시군 관심부재, 역할조차 모름)
- 도·시군의 연석회의를 통해 법 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 신청 전략, 사업 신청의 가이드라인, 상호 역할을 명확히 숙지하고 도와 시군에 주어진 각각의 역량을 결집하는 기회를 자주 마련하여야 함

- 동 연석회의에서 시군 간 연합을 모색하여 사업을 신청하는 장기적 대안이 있음을 제시하고 그 방안까지 논의(핵심 유적 빈곤 등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있을 수 있는 시군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 제시 필요)

### 3. 사업 시군 선정에 선택과 집중 필요

- 선정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군을 집중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 핵심 유적이 다수 분포하고 사업 신청 의지가 높은 시군에 대해 도가 전략적으로 행정력 집중 지원
  - 시군의 자유의사에 따른 산발적 신청으로 역량을 분산하기 보다는(자칫하면 도 내 시군 간 경쟁에 소모되는 행정력 낭비 초래) 가능성과 의지가 높은 시군을 사업 선정까지 집중 지원하여 사업선정 성공 모델화 시키는 것이 효율적
  - 이후 선정된 시군을 거점 시군으로 하여, 정비 권역을 주변 시군으로 확대해 나가는 전략 구사 필요
  - 시군마다 새로운 정비구역을 지정받고자 하면 신청 초기 단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핵심 유적이 적은 시군은 선정 자체가 요원
  - 거점 시군의 정비 권역을 인근 시군으로 확대 지정받는 것이 오히려 더 용이할 것으로 판단  
ex) 강릉의 초당지역 '동예유적' 선정 → 향후 초당지역 '동예유적1지구', 주변 시군인 동해시의 송정동지역 '동예유적2지구' 등으로 확대, 강릉·동해·삼척·양양 등을 '동예유적지구'로 통합하는 등의 방안 모색
  - 신청 기반이 약한 시군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거점 시군의 사례를 모델로 하여 사업 참여와 추진 독려
- ※ 「역사문화권정비법」에서 표방하는 행정구역을 초월한 다수 지자체 역량집중에 해당

### 4. 문화재청 공모사업 세부 심사항목과 기준에 적합한 신청 전략 모색

- 신청서 작성 시 심사기준(배점표)을 충족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절대적 요건
- 문화재청에서 제시한 심사기준의 세부 적용요건이 무엇인가를 문화재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면밀하게 파악한 후 신청서에 답아야 함
- 시군에서 이에 적합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전략적 지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

# ‘강원특별자치도 역사문화권 정비 사업 발전 방안 모색’ 전문가 포럼 토론문

이상수(가톨릭관동대 박물관 학예실장)

## 1. 강원특별자치도와 기초자치단체(18개 시·군)의 역할

### 1)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관련 핵심유적에 대한 실태조사의 필요성!!

-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전략 계획 수립 및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됨.
- 위의 정비법에 규정된 강원특별자치도의 “예맥역사문화권(溌貊歷史文化圈)”에 해당하는 정비 대상 핵심유적에 대한 선별 및 실태조사가 체계적·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청 발주, 강원문화재연구소에서 시행중인 관련 용역과업 수행 내용에 반드시 “예맥역사문화권”의 핵심 유적에 대한 종합적 현황(유적 목록화 및 유적 분포지도 작성, 도면화 등)을 파악하여, 향후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에서 관련 정비 사업을 추진할 시 기초자료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예 : 2022년 문화재청에서 8개 역사문화권 해당 유적 기초조사 1차 사업 발주>중앙문화재연구원 주관>강원지역 역사문화권(예맥, 신라, 고구려, 백제)은 강원문화재연구소에서 수행함 (44개 유적 선별 및 실태조사, 평가자료 참조))
- 또한 예맥관련 핵심유적을 중심으로 주변유적(신라·고구려·백제 등)을 함께 조사하여, 연계성을 부각시키는 작업도 병행하여야 하고, 최종 핵심 유적과 주변유적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 해 주어야 함.

### 2) 강원특별자치도와 사업주체인 각 시·군 간의 상호 역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

- 도와 시·군 간에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추진 사업에 대한 명확한 내용과 기준(역사문화정비법의 취지와 목적, 정비사업의 분담 역할 및 사업추진 주체 등)을 정리해 줄 필요성이 있음.
- 이를 위해, 도청 주관 하에 18개 시·군 문화재 담당공무원(학예사 등) 간 협의체(또는 간담회,

설명회 개최)를 정기적으로 구성·개최하여, 일차적으로 역사문화권 정비 사업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고, 유기적인 소통과 공유 협조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향후 문화재청 “역사문화권 정비법 사업” 공모와 관련, 강원특별자치도 예맥역사문화권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잘 보여 주고 아울러 상징적인 유적이 밀집 분포한 지역(예 : 춘천의 맥국, 강릉의 예국, 삼척의 실직국 등)을 전략적으로 선정하여 집중 행정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함.
- 예맥역사문화권의 중심지역(춘천, 강릉, 삼척·동해 등)과 주변지역(각 시·군)을 2~3개 권역으로 묶어 정비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도 바람직함.

## 2. 강원특별자치도 및 학계와 공동으로 ‘예맥문화권의 정체성’ 구현을 위한 역량 결집 및 강화

### 1) 강원특별자치도의 적극적인 행정 예산 지원을 통해 ‘예맥문화권의 정체성’ 구현을 위한 역량 집결 및 강화의 필요성!!

- 예맥역사문화권 관련, 현재까지의 각종 자료(문헌 및 고고자료 등)에 대한 종합적 집대성(DB 구축, 강원문화재연구소의 역할 수행) 작업이 필요함.
- 예맥역사문화권 관련, 국내 문헌사(고대사) 및 고고학 분야의 연구자(학자 및 전문가 등)가 참여하는 정기적인 학술대회(예 : 강원학연구센터, 국립춘천박물관, 한국고고학회, 한국상고사학회, 중부고고학회 등 활용)를 개최·운영할 필요성이 적극 요구됨.
- 강원특별자치도내 대학의 전공학과에 소속된 학부생 및 대학원생들이 ‘예맥역사문화권’ 분야에 관심을 갖고 전공하도록 유도·지도하여 미래의 인재 양성에도 힘을 기울이는 것도 장기적으로 필요함.(특히 대학원 석·박사 학생들에게 장학금과 같은 인센티브 제공)

### 2) ‘예맥문화권의 정체성’ 구현을 위한 연구 방향에 대한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할 필요성!!

- 예맥의 고대사 분야의 기존 연구 방법 및 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분석이 필요함.
- ‘예맥역사’와 관련한 한정된 문헌자료와 최근에 풍부하게 축적된 고고학적 물질자료를 융복합적으로 규명하도록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요구됨.
- ‘예맥역사문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다양하고 새로운 연구 시각과 방법론을 모색하여 그 정체성 구현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는 것이 매우 필요함.

# ‘강원특별자치도 역사문화권 정비 사업 발전 방안 모색’ 전문가 포럼 토론문

홍형우(강릉원주대학교 교수)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약칭 : 역사문화권정비법)>(2020.6. 입법) 및 개정(2022.1)에 따른 예맥역사문화권 설정에 따라 마련된 이번 학술포럼에서 발표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역사문화권 설정의 의미와 방향" 및 "역사문화권 정비육성 선도사업 사례발표"에 대하여 토론자가 이해하는 범위에서 요약 정리해보고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듣는 것으로 질의를 대신하고자 한다.

1.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역사문화권 설정의 의미와 방향”에서는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이란 역사 문화환경을 조사, 연구, 발굴, 복원, 보존, 정비 및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문화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정리하면서,

목표 1 : 역사문화권 가치창출 기반 마련

- 정책과제1 :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제도적 기반구축
- 정책과제2 : 역사문화권 역사문화환경 조사 및 연구

목표 2 : 역사문화권 정비를 통한 지역활성화 도모

- 정책과제3 : 역사문화권 정비육성 선도모델 추진
- 정책과제4 : 역사문화권 관광자원화 및 산업활성화 추진

목표 3 : 참여와 협력을 위한 역사문화권 거버넌스 형성

- 정책과제5 : 시민참여 및 활동 유도
- 정책과제6 : 전문인력 강화 및 국제교류

등 목표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발표자는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에서 결국, 핵심은 비지정 문화유산을 포함한 면적 관리 정비 활용, 역사문화도시 조성으로 보면서, 지자체의 의지가 무엇보다 절실하며, 또한 전담 조직의 구성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자체에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전담 조직을 구성한다면 어떠한 성격의 기관 또는 조직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하여도 보충 설명을 듣고자 한다.

2. 발표자는 가야역사문화권 및 마한역사문화권의 사례 및 중원문화연구포럼 조직표를 예시하면서, “고대 예맥역사문화권 설정 그 자체가 유산의 보호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설정 및 관리에

따른 기준을 충족시키려는 노력을 유발시키고,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유산의 관리책임을 해당 지자체에 부담 지울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의 질문과 연계되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발표자가 생각하는 이러한 사례 및 조직에서 예맥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이 참고해야할 사항이 무엇인지 보다 명확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3. “일본유산(JAPAN HERITAGE) 운영 : 면적 관리 + 스토리텔링 = 활용중시”를 언급하고 있는데, 향후 예맥역사문화권에서 참고해야할 보다 구체적인 사례의 연구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이 있는지도 궁금하다.

4. 발표자는 또한 조직 설립 → 문화재 정비 → 전문인력(연구자) 육성방안 → 예맥역사문화권의 홍보와 일반시민과의 교류와 함께 지역사로서의 이해/도 단위 대문화권으로 설정 기능을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도 단위 대문화권이 갖는 의미에 대한 보충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5. “역사문화권 정비육성 선도사업 사례발표”는

- ① 준비과정 →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공모개요
- ② 학습 및 자문 → 역사문화권정비법, 건축공간연구원 brief(비지정문화재 정비와 지원 가능, 고도국한을 역사도시까지 확대, 지역 발전과 연계하여 활용가치 증대)
- ③ 선도사업 기획 → 전문 교수단 + 문화기획자 + 도시재생센터 + 문화유산과, 초당동주민센터
- ④ 선도사업 대상지 선정 → 초당동유적(구석기, 신석기), 초당동유적(삼국, 통일신라), 강문동유적(철기) ⇒ 강원지역 고분군 중 최대규모, 최고위계
- ⑤ 예맥역사문화권 자료 → 여(철)자형 집자리, 경질무문토기, 타날문토기, 청동 진술선예백장인장, 강릉 예국토성 및 지형도 /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세종실록 기록 / 삼국지 위서동이전의 예맥풍속(문화)와 전승모습 비교
- ⑥ 장점 및 차별성 → 문화유산과(조직) / 연계사업(관광거점사업) / 예맥+신라 복합문화권 / 사업홍보효과 / 공공시설 재활용
- ⑦ 단점 및 보완할 점 → 새로운 규제가 아닌 주민상생 방안 마련 / 도시화 지역 주민동참 필수 / 예맥역사문화권 특징 부족 / 가시적 유적군 부족 / 예맥 및 신라 문화권의 연결고리 보완
- ⑧ 마무리 및 제안사항 → 강원특별자치도에 맞는 문화재보호와 지역상생의 강원특별자치도를 개발 필요

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인데, 이와 같은 선도사업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계획과 이를 실행할 조직, 그리고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강릉시의 향후 계획을 듣고자 한다.





#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starting below the 'MEMO' header and extending across the page.